

코로나19의 제약을 견디는 사람들 :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오락화 역량을 중심으로*

고 동 우†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본 연구는 2020년 초기 이후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였다.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오락화 역량을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야기하는 심리적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302명의 대학생 표본으로부터 웹서베이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상황은 부정적 심리반응을 유의하게 유발하고 있고, 그 경향은 자기오락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증가한다. 이런 결과의 패턴은 여성 표본에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감이 큰 지역 표본에서 유의하게 더 강했다. 둘째,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긍정적 심리반응을 유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회적 책임의식이 촉진적 조절효과를 보였다. 그 경향은 여성 표본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의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과 반대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과 향후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여가제약,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자기오락화역량, 긍정/부정 심리적 반응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대구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과제번호20160062).

† 교신저자 : 고동우,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dwko@daegu.ac.kr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 19(COVID-19)”가 약 100일만에 소위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지위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견된 이후, 2~3월 대구경북지역의 종교단체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사회의료체계 안전망의 붕괴 위기까지 이르렀다. 4월에 이르러 극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극복의 성과를 확인하고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난 1월 하순부터 4월 하순에 이르는 약 3개월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심리적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일부는 이 기간을 잘 견뎌낸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8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그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은, 시민 개인에게 다양한 긴장(즉, distress와 eustress)을 유발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최소 두 가지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19의 실제적 위협과 이에 대응한 정부기관의 행동계약 시책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강제 혹은 자유의 박탈로부터 오는 디스트레스(distress)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공공문화규범을 따르지 않았을 때 야기되는 사회 심리적 위기인데, 우리에게서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여가심리학적 관점에서, 후자는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공동체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이로 인한 심리적 경험과 결과에 대한 탐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행동계약의 시책과 자기보호 생활양식이 가져온 심리적 경과를 탐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여가심리학과 공동체심리학의 관점에서, 어떤 심리적 특징을 가진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스트레스(stressor)에 더 잘 대처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약 3개월에 걸친 사회적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위기를 잘 이겨내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을 부정적/긍정적 심리반응 수준에서 판단할 때, 개인적인 심리적 특질 혹은 신념체계로서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목적적 성격이 완충 혹은 촉진적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

여가계약요인으로서 ‘코로나19’와 개인차

자유의지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경험은 ‘여가(leisure)’라고 하므로(Neulinger, 1981), 자유행동의 범위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여가계약(leisure constraints)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계약’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가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또 바람직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Jackson, 1988, p.203). 전통적으로 여가계약 연구는 제약 요인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심리와 극복전략(coping strategy)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또한 팬데믹의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같은 정부 시책은 시민의 자유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있고, 나아가 자유재량시간의 기대를 제한하여 왔으므로, 이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수준의 부정적 긴장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여가 제약 극복전략으로서 타협(negotiation)이 자주 논의되어 왔다(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Scott, 1991; White, 2008). 제약 조건이 심각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사람들은 나름의 타협전략을 탐색하고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ble, Selin, & Erickson, 2003; Hubbard & Mannell, 2001; Son, Mowen, & Kerstetter, 2008).

여가 제약 타협전략은 대체(substitutions)나 지연(delay)같은 인지적 수준에서부터 행동적 수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leiber, Walker, & Mannell, 2011, pp. 429~435). 다양한 타협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개인적 능력이나 동기 경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컨대 옥외여가활동 수요자의 제약과 참여를 탐구한 White(2008)는 일반적인 여가동기와 타협 효능감(negotiation efficacy)이 타협전략과 참여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긍정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는 여가동기와 능력(자신감)이 여가 제약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개인적 성향/역량의 개인차 변인이 여가 제약의 한계와 부정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자기목적적 성격과 자기오락화 역량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제약 상황에서도 즐겁고 의미있는 요소를 탐색하고, 제약의 대안을 더 쉽게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Csikszentmihalyi(1990)는 ‘자기목적적 성격(autotelic personalit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Csikszentmihalyi(1990)는 최적경험이자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으로서 ‘flow’ 개념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flow를 쉽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flow에 쉽게 빠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능력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pp.83~85). 호기심이 많고, 덜 자기중심적이며, 어떤 일이든 그 자체에 집중하고 도전할 만한 과제를 찾아서 몰두하는 이들은 경험의 즐거움 그 자체에 행위 목표를 두는 내재적 동기 경향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행위결과나 외재적 보상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내재적 동기 성향이 약해서, 어떤 과제의 결과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의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자기목적적 성격 특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도전적이고 고급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에 동기화된 사람일수록 일(work)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Csikszentmihalyi & LeFevre(1989)는 그 이유를 자기목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대로 여가 상황에서조차 flow를 겪지 못하는 이유는 비구조화된 자유시간에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능력의 결핍은 곧 자기목적적 성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술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상황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논의하였다(p.821). 따라서 자기목적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부정적 스트레스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다(Csikszentmihalyi, 1990, p. 199).

여가경험의 개인차에 주목한 여가학자들은 자기목적적 성격을 반영하는 여러 특질을 탐색하여 왔다. 이 중에서 특히 두 가지 개념이 자기목적적 성격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재적 여가동기 성격(intrinsic

leisure motivation personality)과 자기오락화역량(SAE: self-as-entertainment capacity)이 그것이다(Kleiber et al., 2011, p.210). 전자는 여가활동 참여 상황에서 쉽게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Iso-Ahola & Weissinger, 1987; Weissinger & Bandalos, 1995).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해당 여가활동에 대한 자기결정 욕구, 유능감 욕구, 깊은 관여, 도전 열망이 강한 반면, 권태감 지각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기오락화 역량은 구체적인 여가활동 맥락이 아니라 ‘자유재량시간(free 또는 discretionary time)이 주어질 때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적절한 여러 활동을 찾아내서 잘 수행하는 능력 또는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Mannell, 1984; Kleiber et al., 2011, p.212).

두 가지 개념 모두 상기한 자기목적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Kleiber 등(2011)은 자기목적적 성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때 두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p.212). 그러나 내재적 여가동기 성격이 구체적인 여가활동의 맥락에서 개인이 가진 내재적 동기화의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즉, 이미 ‘여가’의 개념이 내재적 동기 조건을 포함한다.), 자기오락화 역량은 여가활동 시간을 포함한 “일상의 자유재량 시간”을 즐겁게 채우는 방법에 대한 역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능력으로서의 자기목적적 성격’에 더 근접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기오락화 역량의 개념을 제안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Mannell(1984)에 의하면, 자기오락화 역량은 크게 3개 하위차원으로 분해할 수 있다: 각각 자기양식(self mode), 환경양식(environmental mode) 및 놀이화양식(mind-play mode)이다. 이 중 ‘자기양식’은 자신의 자유재

량시간을 스스로 성공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환경양식’은 다른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채울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놀이화양식’은 자유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환상이나 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세 가지 하위 차원 중 ‘자기양식’이 자기오락화의 핵심적 구성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Barnett & Klitzing, 2006; Kleiber et al., 2011, p.212).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수행한 Barnett & Klitzing(2006)에 의하면, 자기오락화 역량이 클수록 일상의 자유 시간을 덜 지루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자기오락화 역량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수록, 그리고 내재적 동기가 강할수록, 여가활동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Barnett, 2006). 국내에서도 최성범·함경수(2009)가 여가활동에서 자기오락화 역량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고동우·김병국·박정화(2012)는 자기정체성과 자기오락화 역량 및 여가생활만족도 사이의 구조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자기정체성이 자기오락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여가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자유재량 시간을 성공적으로 구조화하여 채울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기오락화 역량은 자기목적적 성격의 본질적 요소로 평가된다. 그리고 자기목적적 성격은 일과 여가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고 더 자주 최적 경험을 유도하며, 제약 조건이나 일상의 스트레스에 직접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내게 하여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타협하게 유도하는 개인 능력이다.

그러므로 자기오락화 역량은 코로나19 이후 자유재량시간의 제약에 타협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는 유의한 개인적 특질일 수 있다.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의 완화 효과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차원에서 공동체의식은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왔다. Sarason (1974)이 호혜적 관계망의 잠재적 기능을 중심으로 공동체심리학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McMillan & Chavis(1986)가 공동체의식을 이론적 수준에서 정립하였고, 후속의 많은 경험적 연구를 유도하였다. 그들은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4가지 요인구조로 설명하였다. 첫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갖게 하는 소속감(MEM: Membership), 둘째, 구성원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형성된 양방적인 상호 영향관계(INFL: Influence), 셋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얻는 통합감과 욕구 충족(IFN: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넷째,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유대관계로부터 나온 정서적 친밀감의 공유(SEC: Shared Emotional Connection) 등이 그것이다. 곧이어 Chavis, Hogge, McMillan, & Wandersman(1986)은 공동체의식 지수(SCI: Sense of Community Index)라는 측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이 4가지 차원을 기본 구조로 하여 공동체의식 척도를 개발하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재정리하여 측정하여 왔다(김경준, 1998; 류승아, 2014; 박가나, 2008; 이종환, 1992; 장수지 등, 2014; 정진경, 1999; Chipuer & Pretty, 1999; Lounsbury & Deneui, 1996; Perkins, Florin, Rich, Wandersman, & Chavis, 1990).

한편, 공동체 의식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공동체의식과 긍정정서가 더 높다는 결과(Roussi, Rapti, & Kiosseoglou,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의식의 만족도 증진효과와 스트레스 완충효과 연구(류승아, 2014), 부정적 정서 완화효과(Pretty, Andrewes, & Collett, 1994), 만성 스트레스 완충효과(Cicognani, Peitrantoni, Palestini, & Prati, 2009), 그리고 정신적 외상 경감효과 연구(Greenfield & Marks, 2010)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공동체의식이 코로나19와 같이 지역 내 만연한 부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의 측정 문제는 재고가 필요하다. 전술했던 것처럼 공동체의식 측정은 대부분 McMillan & Chavis의 이론적 틀을 따라 진행되었지만, 개별 연구들을 보면 4개 요인의 측정 문항이 조금씩 다르고, 하위 차원에 대한 요인명도 연구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예, 김경준, 1998; 류승아, 2014; 박가나, 2008; 정진경, 1999). 박가나(2008)의 고찰을 보면, 이런 현상은 외국에서도 비슷하다. 예컨대 Buckner(1988)나 Davidson & Cotter (1986)는 각각 공동체의식의 하위 차원이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요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하여 Peterson, Speer, & McMillan(2008)은 단축형 공동체의식 척도(즉, 긍정형 8문항)를 구성한 후, 공동체의식의 전체 단일요인과 4요인 구조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비교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구조와 단일요인 구조가 모두 타당하고, 전체 단일요인 및 4개 하위 요인 모두 종속변인으로 측정한 ‘정신건강’에 정적으로,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로부터 연구자들은 두 가지 방식의 공동체의식 하위구조 요인이 모두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공동체의식이 Sarason(1974)의 호혜적 상호의존성이나, McMillan & Chavis(1986)의 4개 차원을 포함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구성요인 간 관계구조의 역동성 혹은 다른 요인의 추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리학 영역에서 공동체의식의 개념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서, 친사회적 경향성(prosocialness 또는 pro-social behaviors)과 사회적 책임의식(social responsibility) 등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과 친사회적 경향성의 공통점은 사회성원 혹은 공동체 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그로부터 발생한 긍정적인 호혜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 내용을 고려하면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히 공동체의식 대신 친사회적 행동연구가 2000년대 들어 급증한 배경으로서 긍정심리학의 대두를 지목하는 지적도 있다(Martí-Vilar, Corell-García, & César Merino-Soto, 2019, p.368). 결국 친사회적 행동 경향은 호혜적 관계에 근거한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의 하위 구성 내용이거나 혹은 직접적인 결과 변인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Nowell & Boyd(2010)에 따르면,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나 친사회적 경향성의 개념과 측정 방식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책임 내용이 간과된 경향이 있다. 그들은 McMillan &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이론이 단순한 욕구이론의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를 개인적 욕구충족의 자원(resource)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비판하였다. 즉, McMillan & Chavis의 공동체의식 개념은 자원 활용의 결과로서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를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의 규범과 구성원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간과함으로써 공동체 참여(community engagement)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곧 Nowell & Boyd(2010)는 자원중심 공동체의식 이론의 경쟁 대안 모형으로서, 책임중심 공동체의식의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공동체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owell & Boyd(2010)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 즉, 사회체계나 공동체를 지탱하는데 필수 요소인 규범 혹은 책임에 대한 구성원의 가치의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¹⁾.

규범 활성화 모형(norm activation model: Schwartz, 1977)에 의하면, 규범의식(personal norms)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게 된 도덕적 강제 의 느낌으로 개념화된다. 규범의식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역시 사회성원이 형성한 공동체의식의 일부로서 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제는 독립적인 영역의 주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사회규범행동이나 환경보호행동의 주제 하에서 이 개념이 중시되었다(Onwezen, Antonides, & Bartels, 2013). 사회공동체나 자연환경 유지를 위한 규범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이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적인

1) McMillan(2011)은 Nowell & Boyd(2010)의 비판에 대하여, 자신들의 공동체의식 이론이 이미 규범과 책임의식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반론하였다. 또한 박가나(2008)는 공동체의식의 요인 중 '구성원의식(membership)'이 소속감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구성되었다고 논의하였으나(p.59), 후속의 측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나 규범의식을 포함하지 못했다. 다른 공동체의식 연구들도 사회적 책임을 측정할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개념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공동체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위협에 대한 저항력을 탐구하는 본 연구의 방법으로서, 친사회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의 대안적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약과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을 견디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다. 전통적으로 자기목적적 성향이 강할수록 타협을 통한 제약극복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은 지역사회 수준의 부정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제약과 염려에 대하여, 자기목적적 성향(즉, 자기오락화 역량)과 공동체의식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 실제로 유의한 완충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측정변인 및 설문지

자기목적적 성향으로서 자기오락화 역량

‘자기목적적 성향’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위의 결과나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과정과 수행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적 역량’을 의미한다. Klieber 등(2011, p.212)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자기목적적 성향을 대변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오락화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조작적 수준에서 ‘자유재량시간에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의 측정은 Mannell(1984)이 제시한 3가지 차원 중 ‘환경양식 차원’을 제외한 ‘자기양식’과 ‘놀이회양식’에 해당되는 15개 문항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5개 문항은 ‘놀이화(상상력)양식’, 10개 문항은 ‘자기양식’이며(이중 5개 문항은 역전 문항이다) 모두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표2 참조). 여기서 ‘환경양식’ 차원을 제외한 이유는 이 요인이 야외 장소를 탐색하고 찾아가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하고 측정하는 바, 본 연구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

공동체 개념을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 관심, 목표, 신념과 유대를 공유하는 관계망”(장수지 등, 2014, p.4)으로 고려하면,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관계망에 대해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신념 체계”이다. 또한 조작적 수준에서 ‘공동체의식’을 ‘구성원이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과 유대감이라는 성원 의식(membership), 공동체에 대한 상호영향력, 공동체의 자원으로 부터 얻게 되는 욕구의 통합과 충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연대하는 감정적 공유를 가지는 정도’(장수지 등, 2014, p.9)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행동 영역이 간과되었다는 Nowell & Boyd(2010)의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에 대한 신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의식'을 추가로 측정하였고, 그것이 공동체의식의 대안적 변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측정 척도는 McMillan & Chavis(1986), Peterson 등(2008), 김경준(1998), 박가나(2008), 장수지 등(2014)의 측정 문항을 고려하여 비교적 공통적으로 드러난 8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단일차원의 공동체의식이 타당할 수 있다는 Peterson 등(2008)의 논리를 수용하여, 여기서는 8개 문항을 단일차원의 공동체의식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사회적 책임의식은 친환경행동에 대한 Onwezen (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친환경 책임의식과 환경 규범행동 6개 문항을 '사회적 책임'에 맞게 변안하여 활용하였다. 공동체의식 8개 문항과 사회적 책임의식 6개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자료 분석에서는 이들 문항을 한 번에 투입하여 탐색적 수준의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2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부정적 심리 반응과 긍정적 심리 반응

중속변인으로 고려된 스트레스 수준은 코로나 19 발발이후 약 3개월에 걸쳐 개인이 지각하는 부정적 심리 반응에 해당된다.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은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약이나 자극은 부정적인 긴장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같은 유스트레스(eustress)인 긍정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 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절차를 거쳐 긍정/부정 심리적 경험 항목을 우선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무 중인 중년의 대학교수 1

명, 정상적인 출근을 하는 부장급 직장인 1명, 50대 전업주부 1명, 연구실로 매일 출근하는 20대 대학원생 1명, 등교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재택 중인 대학 신입생 1명, 재택근무와 직장 출근을 번갈아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1명 등과 개별 대화를 통해 지난 1월이후 느꼈던 심경을 수집하였다. 이로부터 정서와 인지적 신념에 해당되는 심리적 경험을 정리하였고, 이를 부정적 경험 11종과 긍정적 경험 12종, 그리고 가치판단이 어려운 중립적 표현 3종으로 분류하였다. 중립표현을 제외한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을 각각 부정적 심리반응과 긍정적 심리반응으로 개념화하였고, 이를 설문으로 작성하여 '코로나 19 발발이후 기간에 각 항목을 느꼈는지'를 '예 /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유도하였다. 각각 부정적 심리반응 항목의 응답 빈도와 긍정적 심리반응 항목의 응답 빈도를 측정 지수로 활용하였다. 각 심리반응은 '기타'란을 추가하여 목록으로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다.

부정적 심리반응 : [① 견디기 힘들었다 ② 짜증이 났다 ③ 불안했다 ④ 우울했다. ⑤ 가족들과 갈등이 생겼다 ⑥ 지루했다 ⑦ 두려웠다 ⑧ 슬펐다 ⑨ 화가 났다 ⑩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⑪ 한국인들에게 실망했다 ⑫기타()],

긍정적 심리반응 : [① 편안했다 ② 놀이가 좋아졌다 ③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였다 ④ 색다른 경험이었다 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 ⑥ 사회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⑦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⑧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⑨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했다 ⑩ 디지털 기기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⑪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⑫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웠다 ⑬기타()].

제약조건 지각과 제약지각/염려수준

본 연구의 조건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생활의 제약을 느끼고, 이로부터 개인적 인 삶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염려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코로나19의 위협 여부”, “삶의 위협 지각염려”, “삶의 제약-활발 정도”를 측정하는 3개 문항을 질문하였고(표 1참고), 표본이 제대로 표집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3개의 문항의 측정치가 각각 중간값보다 큰지를 확인하였다. 단일표본 t-test 결과, 3개 문항의 측정치 모두 중간값보다 크게 나타났고, 코로나위협여부(평균 3.66, 표준편차 .82, $t=73.641$), 삶의 위협지각(평균 3.93, 표준편차 .82, $t=83.23$), 제약-활발 정도(평균 1.57(역점수), 표준편차 .78, $t=34.79$)로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들 세 개 문항을 묶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후속 시책으로 인한 “제약지각/염려”라는 독립변인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표4), 3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너무 낮았다. 따라서 표 1의 c문항을 제외한 후 나머지 2개 문항(a, b)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 .749)를 확인하여, 2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이 변인을 지수화하였다.

표본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편의를 위하여 'web기반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²⁾, 가장 큰 위기를 겪은 대구 경북지역의 경산시 D대학교 재학생(205명)과 비교적 코로나 19의 재난이 적은 전남 목포지

역 M 대학교 재학생(55명), 그리고 충남 천안 지역 H 대학교 재학생(59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319명의 표본 중에서 불성실 응답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302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4.0과 R version 3.6.3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결 과

표본의 특징

전체 302명 중 학교별 빈도는 경산시 D대학교 204명, 목포시 M대학교 47명, 천안시 H대학교 51명이었다. 남자 98명 여자 204명으로, 여학생 비중이 컸다. 거주 지역은 대구/경북권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38명, 부산/울산/경남권 30명, 호남권 45명, 충청권 17명, 기타(강원/제주) 4명이었다. 연령(만 나이)은 18세~29세로 나타났고, 평균 21.24(표준편차 2.38)세였다.

한편, 각 대학교별 표본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하였으나 구성 비율에서 편포가 심하고, 성별 역시 지나치게 여성의 비율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제약 지각 수준에서 하위 표본들이 동질성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제약조건 지각에 대한 3 문항의 측정값을 하위 표본별로 비교 검증하였다. 표 1에 2×3 ANOVA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조건의 3가지 심각성 수준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성별 × 학교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학교별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별 주효과는 3가지 통계치 모두 유의하였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2) 각 시도청의 통계보고에 의하면, 2020년 4월15일 00시 기준 현재 누적확진자 현황은, 대구 6823명, 경북 1304명(경산 631명), 전남 15명(목포 5명), 충남 139명(천안 105명)이다.

계약 지각이나 위협, 그리고 염려 수준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학교별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3가지 지수 모두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강한 수치를 보였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계약 지각과 위

협 및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 역시 남학생 자료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성별 × 학교별’ 교차항의 오차 분산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의 결과는 3개

표 1. 성별(2)과 학교별(3)에 따른 코로나19의 제약/염려 지각 및 심리적 반응 비교(각 2×3 ANOVA, N=302)

종속변인	학교별 (남/여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 값			
		남(98)	여(204)	합(302)	성별	학교별	성×학교	수정R ²
코로나19 위협여부 ^a	경산 D대(61/143)	3.19(.85)	3.91(.73)	3.70(.83)	15.70***	.006n.s.	1.90n.s.	.106***
	목포 M대(14/33)	3.50(.76)	3.63(.78)	3.59(.77)				
	천안 H대(23/28)	3.26(1.18)	3.85(.89)	3.59(1.06)				
	합계	3.25(.92)	3.86(.76)	3.67(.87)				
삶의 위협 지각 염려 ^b	경산 D대(61/143)	3.49(.92)	4.10(.72)	3.92(.83)	6.52*	.98n.s.	2.95n.s.	.07***
	목포 M대(14/33)	3.93(.27)	3.88(.74)	3.89(.63)				
	천안 H대(23/28)	3.78(1.17)	4.14(.71)	3.98(.93)				
	합계	3.62(.93)	4.07(.72)	3.93(.82)				
생활 제약 활발 정도 ^c	경산 D대(61/143)	1.84(.97)	1.44(.73)	1.56(.83)	5.83*	.52n.s.	.80n.s.	.106***
	목포 M대(14/33)	1.86(.66)	1.61(.75)	1.68(.73)				
	천안 H대(23/28)	1.48(.66)	1.50(.64)	1.49(.64)				
	합계	1.75(.87)	1.47(.72)	1.57(.78)				
부정심리반응 (distress)	경산 D대(61/143)	2.54(1.63)	3.04(1.83)	2.89(1.78)	.27n.s.	4.11*	.72n.s.	.035**
	목포 M대(14/33)	2.29(1.59)	2.21(1.52)	2.23(1.52)				
	천안 H대(23/28)	2.09(1.50)	2.07(1.78)	2.08(1.65)				
	합계	2.40(1.59)	2.77(1.81)	2.65(1.75)				
긍정심리반응 (eustress)	경산 D대(61/143)	1.62(1.74)	2.31(1.81)	2.11(1.81)	3.13n.s.	.61n.s.	.54n.s.	.013n.s.
	목포 M대(14/33)	1.36(1.34)	1.97(1.73)	1.79(1.63)				
	천안 H대(23/28)	2.00(1.71)	2.11(1.83)	2.06(1.76)				
	합계	1.67(1.68)	2.23(1.79)	2.05(1.77)				

*. p<.05, **. p<.01, ***, p<.001, n.s.: non-significant.

a.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인 2월~3월, 귀하는 어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① 전혀 두렵지 않았다 ~ ⑤ 매우 두려웠다)의 5점 등간척도.

b. “코로나19가 야기하는 ‘개인적인 삶의 위협’에 대하여, 요즘 귀하는 얼마나 염려하고 계신가요?”

(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 ⑤ 매우 염려하고 있다)의 5점 등간척도.

c. “코로나19 발발이후 지금까지, 요즘 귀하의 (여가 포함) 일상생활은 작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① 많은 제약이 있다 ~ ⑤ 매우 활발해졌다)의 5점 등간척도

변인 중 “생활 제약-활발 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F(5,296)=1.536, n.s.$), “코로나19 위협 여부지각”과 “삶의 위협염려”는 각각 $F=4.111$ ($p<.001$), $F=5.419$ ($p<.001$)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3개 중 2개 변인에서 하위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결국, 코로나19 제약과 위협의 영향에 대한 후속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긍정적 심리반응 빈도와 부정적 심리반응 빈도가 하위 표본별로 동질성을 확보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별×대학별’ 하위 표본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부정적 심리반응 빈도의 오차 분산 동일성에 대한 Levene 검정값은 $F(5,296)=.543$ (n.s.)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심리반응 빈도에 대한 Levene 검정값도 $F(5,296)=.600$ (n.s.)로서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2×3 ANOVA 결과, 긍정적 심리반응 빈도는 하위 표본간 차이가 없었으나(평균 2.05, sd 1.77), 경산 D대학 표본의 스트레스 지수(부정적 심리 반응빈도, 평균 2.88, sd 1.78)가 다른 하위 표본인 목포(평균 2.23, sd 1.52), 천안(평균 2.08, sd 1.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 완충 효과분석에서 디스트레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경북 지역 표본을 구분하여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 척도의 요인분석

공동체의식 8개 문항과 사회적 책임의식 6개 문항이 각각 다른 성분으로 수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축요인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보면, 2개 요인이 비교적 명료하게 나타났다으며, 이어서 작업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의 각종 지수들도 모두 타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2 하단). 따라서 후속 분석에서는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별개의 변인으로 처리하였다. 표 4에서 보면, 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25와 .899로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한편 자기오락화 척도 15문항에 대한 주축요인 분석결과(표 3), 새로운 요인이 발견되었다. 놀이화(상상력)양식 요인이 예상대로 독립차원으로 분류되었으나, 자기양식 요인의 긍정형 문항과 부정형 문항들이 각각 개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긍정형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을 ‘자기양식’ 차원으로, 부정형 문항의 성분을 ‘무기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다만 놀이화양식(상상력) 요인으로 작성된 10번 문항의 경우 예상과 달리 자기양식 요인에 할당되었고,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양식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주축요인 분석결과, 3개 요인이 비교적 명료하게 나타났다지만, 요인간 관계를 고려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결과 각종 지수들도 모두 타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양식 6문항, 무기력요인 5문항, 그리고 놀이화(상상력) 요인 4문항으로 할당하여 후속 분석에서는 각각 평균값을 지수로 추정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약 .80 수준을 상회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와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종속변인인 긍정적/부정적 심리반응은 각각 응답자가 선택한 심리적 반응의 빈도로 처리하였는데, 부정적 심리반응 빈도는 평균 2.64개(최대 11개)였고, 긍정적 심

리반응 빈도는 평균 2.05개(최대 12개)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전제인 코로나19의 영향 조건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을 묶어서 스트레스 자극요인(즉, stressor)으로 고려하였다. 내적합치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값이 .009 수준이었

다. 다만 위협지각(즉, 표 1의 문항 a: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지각) 문항을 제거한 후 나머지 2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47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 1의 문항 b와 c(역전문항)를 평균하여 “계약/염려지각” 변인

표 2.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패턴행렬, n=302)

문항	요인1. 사회적 책임의식	요인2. 공동체 의식	공동값 (h ²)
책임3. 사회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느낀다	.882		.748
책임4. 이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나의 힘을 보태야 한다.	.830		.684
책임5. 보통 사람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799		.631
책임2. 나는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책임을 느낀다.	.792		.634
책임1. 모든 시민은 사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708		.495
책임6. 나는 친사회적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629		.428
공동8.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786	.463
공동5.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752	.543
공동6. 나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		.710	.542
공동4. 나는 이 지역사회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656	.463
공동2. 내가 노력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52	.303
공동7. 우리 지역에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522	.259
공동3.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74	.264
공동1. 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364	.268
추출 제곱합 적재값	4.557	2.270	
설명량(%)	32.542	16.214	48.762

주. 책임: 사회적 책임의식 문항, 공동: 공동체의식 문항.

주축요인분석(Oblimin사각회전). KMO=.868, Bartlett $\chi^2=1686.20(df 78,p=.000)$, 요인부하량 .30 이하 제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chi^2=213.509(df=76, p<.001)$, GFI .911, AGFI .878. CFI .924, TLI .909, RMSEA .077, SRMR .069

으로 처리하였다. 제약/염려지각 수준은 평균 4.18(sd .68)로 나타났다. 부정적 심리반응 빈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사회적 책임의식'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행렬을 보면, 제약/염려지각은 긍정적/

표 3. 자기오락화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패턴행렬, n=302)

문항	요인1. 자기양식 요인	요인2. 무기력 요인	요인3. 놀이화 (상상력) 요인	공통값 (h ²)
6. 나는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742			.652
9. 내 스스로 즐기는 데 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676			.418
7. 나는 자유 시간에 즐길만한 것을 쉽게 찾아낸다.	.655			.514
10. 나는 무엇이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604			.454
5. 무언가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487			.271
8. 나는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한다.	.463			.203
12.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문제를 느끼곤 한다.		.820		.660
11. 자유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783		.645
13. 계획했던 일이 취소되고 나면, 이를 대체하여 즐길 만한 일을 찾는 게 힘들다.		.780		.589
14. 내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싫다.		.647		.434
15. 종종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나를 느낀다.		.530		.287
3. 나는 휴식을 하는 동안 상상하는 것을 즐긴다.			-.862	.641
4. 스스로 즐거워지기 위하여 나는 상상을 자주 한다.			-.711	.537
1. 나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622	.569
2. 나는 재미있는 것을 쉽게 상상해낸다.			-.595	.627
추출 제곱합 적재값	4.616	2.190	.694#	
설명량(%)	30.776	14.602	4.625	50.01

주. 주축요인분석(Oblimin사각회전). KMO=.854, Bartlett $\chi^2=1918.687(df=105, p=.000)$, 요인부하량 .30이하 삭제

#. 놀이화(상상력) 요인의 초기 고유값 1.189으로서 독립요인으로 추출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236.386(df=87, p<.001)$, GFI .903, AGFI .867, CFI .920, TLI .903, RMSEA .075, SRMR.053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완충 변인으로 고려한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오락화역량 3가지 요인이 긍정적/부정적 심리적 반응에 관련된 상관관계수 패턴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부정적 심리반응과 이들 주요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수는 어떤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의식, 놀이화(상상력) 요인 및 자기양식 요인은 작지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부정/긍정적 심리 반응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심리적 반응에 대한 완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코로나19가 스트레스 요인이라면 이로 인한 심리적 제약/염려지각을 독립변인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자기오락화 역량이 완충효과를 가진다면 각각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스트레스 완충변인으로 설정한 5가지 변인과 ‘제약/염려지각’ 사이의 상호작용 변인 5개항을 생성하여 회귀

표 4. 주요 변인의 상관행렬(n=302)

변인	평균 (sd)	a	1.	2.	3.	4.	5.	6.	7.	8.
1. 부정적 심리반응	2.64 (1.75)	빈도	1.0							
2. 긍정적 심리반응	2.05 (1.77)	빈도	.11	1.0						
3. 사회적 책임의식	3.88 (.60)	.825	.11	.22**	1.0					
4. 공동체의식	3.11 (.54)	.899	.02	-.00	.31***	1.0				
5. 오락화: 놀이화요인(상상력)	3.42 (.71)	.841	.02	.12*	.37***	.26***	1.0			
6. 오락화: 자기양식요인	3.43 (.61)	.796	-.03	.13*	.42***	.35***	.57***	1.0		
7. 오락화: 무기력요인	2.62 (.75)	.838	.09	-.10	-.18**	.01	-.15**	-.34**	1.0	
8. 제약 및 염려지각#	4.18 (.64)	.749	.31***	.18**	.27***	.14**	.08	.13*	-.19**	1.0

*. p<.05, **. p<.01, ***. p<.001, a. 표준화 Cronbach alpha

#.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지각 및 염려수준의 평균값(즉, 표1의 문항 a와 문항 b(역코딩)의 평균)

부정적 심리반응빈도 중앙값 2.0 (최빈값 3), 2. 긍정적 심리반응빈도 중앙값 2.0(최빈값 1)

분석에 투입하였다(표 5)

결과를 보면,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방정식의 구조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부정적 심리반응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염려지각’이 가장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추가적으로 무기력상호작용항(즉, ‘계약/염려지각×무기력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코로나 제약지각/염려로 인해 더 많은 부정적 심리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해서, 코로나 제약/염려지각과 사회적 책임의식의 상호작용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코로나 ‘계약/염려지각’으로 인해 긍정적 심리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른 예언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를 함께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코로나19의 제약은 많은 복잡한 생

각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 등 다른 투입변인들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도 흥미롭다. 그러므로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제약/염려지각 및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표본의 성별과 학교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추가분석: 성별과 학교지역별 회귀분석 비교

동질성 검증에서 확인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수위가 높았던 대구/경북지역과 다른 지역 표본은 지각하는 부정적 심리반응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p.12), 또한 성별에 따라 코로나19의 제약과 위협 지각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표 1). 따라서 두 가지 심리 반응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영향을 확인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위 표본별로 분류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표6은 성별 및 거주 지역을 구분한 하위 표본별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이다.

표 5. 심리적 반응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n=302, stepwise)

예언변인	부정적 심리반응			긍정적 심리반응			
	β	t값	수정R ²	예언변인	β	t값	수정R ²
단계1				단계1			
계약/염려지각	.309	5.631***	.09***	책임상호작용	.248	4.441***	.06***
단계2							
계약/염려지각	.159	.252***	.11***				
무기력상호작용	.030	.164**					

*. p<.05, **. p<.01, ***. p<.001, β: 표준화 회귀계수

투입변인: [계약/염려지각, 사회적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오락화:자기능력요인, 오락화:놀이화(상상력)요인, 오락화:무기력요인, 책임상호작용(계약/염려지각 × 사회적 책임의식), 공동체상호작용(계약/염려지각 × 공동체의식), 자기능력상호작용(계약/염려지각 × 오락화:자기능력), 놀이화상호작용(계약/염려지각 × 오락화:놀이화(상상력)), 무기력상호작용(계약/염려지각 × 오락화:무기력)]

표 6에서 보면, 부정적 심리반응 빈도에 대해선 대부분의 표본이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염려지각’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기타지역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무기력상호작용 변인(즉, 제약/염려지각 × 오락화:무기력요인) 역시 남자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염려가 클수록 부정적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관계성은 ‘오락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이들에

게서 유의하게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남자들의 경우 ‘오락화: 무기력 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 ‘오락화:놀이화(상상력) × 제약/염려지각’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부정적 긴장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표본의 경우 코로나 19가 부정적 스트레스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표 6. 하위 표본별 심리반응빈도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n=302, stepwise)

변인 표본	부정적 심리반응(distress)				긍정적 심리반응(eustress)			
	단계	β	t값	수정R ²	단계	β	t값	수정R ²
남 (98)	단계1				유의한 해당변인 없음			.03n.s
	제약/염려지각	.290	2.969**	.08**				
	단계2							
	제약/염려지각	.480	3.838***	.116***				
	놀이화상호작용	-.294	-2.351**					
여 (204)	단계1				단계1 책임상호작용			.05***
	제약/염려지각	.302	4.505***	.09***				
	단계2							
	제약/염려지각	.244	3.480**	.11***				
	무기력상호작용	.180	2.576*					
대구 경북 (168)	단계1				단계1 사회적 책임의식			.06**
	제약/염려지각	.396	5.552***	.15***				
	단계2							
	제약/염려지각	.340	4.509***	.17***		.254	3.377**	
	무기력상호작용	.159	2.115*					
기타 지역 (134)	단계1				단계1 책임상호작용			.07**
	무기력상호작용	.233	2.750**	.05**				
						.269	3.212**	

*. p<.05, **. p<.01, ***. p<.001, 투입변인: 표5와 동일

그러므로 여자들의 경우, 그리고 대구/경북 거주자일수록, 코로나19가 야기한 생활제약/염려 지각이 클수록 부정적인 심리반응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관계 경향은 자기오락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강한 것이다. 설명량을 보면, 이런 경향은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경북 표본에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성 표본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표본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 표본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적 책임의식’이 클수록 긍정적 심리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표본과 기타 지역에서는 ‘책임 상호작용 변인(즉, 제약/염려지각 × 사회적 책임의식)’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여학생 및 기타지역 표본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염려지각이 긍정적 심리반응을 유발하는 관계성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초기부터 발발한 팬데믹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가 가져온 여파에 대한 탐구의 일환이다. 대학생 표본 302명의 유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본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제약과 염려 및 위협을 지각하고 있고, 지역적 편차가 없었으나 대신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염려 지각이 부정적 심리반응을 유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경향은 자기오락화 역

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표본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리고 이런 결과의 패턴은 여성 표본일수록, 그리고 대구경북 표본에서 더 두드러졌다(표 6). 셋째, 코로나19의 제약/염려 상황은 긍정적 심리반응을 유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더 두드러졌다(표 5). 그런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 표본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표 6). 대구경북 표본에서는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적 책임의식의 단순 주효과만 확인되었다.

이 중 부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둘째 결과와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셋째 결과가 본 연구의 탐구 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의 생활제약/염려 지각이 클수록 부정적 심리반응의 종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경향성은 자기오락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적 설명량은 약 11%였다. 이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염려지각의 주효과가 유의하므로 소위 규범적 타당도를 확인한 셈이며,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부정적 심리반응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기오락화의 ‘무기력 요인’이 소위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어 예상했던 스트레스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Kleiber 등, 2011, p.212) 자기목적적 성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던 ‘자기양식 요인’은 유의한 통계값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무기력 요인만이 해석할 만한 유의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코로나19의 제약

/염려가 부정적 심리반응을 야기하는 정도는 자기오락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의 상황이 무료함이나 일상의 즐거움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팬데믹 위기 상황을 전제하여 반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Barnett & Klitzing(2006)의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의 자유재량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는 상황을 조건으로 설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위기 상황일 수 있는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만하다. 아마도 팬데믹과 같은 위기와 제약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보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없다는 믿음이 더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즐겁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믿음은 연속선상의 단일차원이 아니라 이원적 차원의 구조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가능성을 지지한다.

한편, 무기력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여성 표본에서 나타났고 남성 표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 표본에서는 오히려 놀이화(상상력) 요인이 코로나 제약/염려지각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거나 혹은 제약/염려지각이 클수록 상상력을 작동하여 부정적 심리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즉, 표 1). 즉,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성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대구/경북지역 표본에서 제약/염려지각과 무기력상호작용 변인의 설명량이 17%에 이를 만

큼 크다는 사실이 이를 암시한다. 즉, 여성에게서 팬데믹의 위기감이 클수록 무기력 요인의 조절효과(즉, 촉진효과)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상상력이 클수록 제약/염려지각이 부정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을 완충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부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다른 부분은 공동체의식과 사회책임의식의 어떤 유의한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의식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밝혀온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류승아, 2014; Cicognani 등, 2009; Greenfield & Marks, 2010; Peterson 등, 2008; Pretty 등, 1994; Roussi 등, 2006), 본 연구 결과는 이와 다른 양상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생활 제약과 위기가 야기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유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코로나19의 위협이 일상 스트레스와 달리 팬데믹 수준이어서 공동체의 호혜적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리적 위기감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누구도 쉽게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개인적 불안과 위기가 해결되거나 개선된다고 믿을 만한 사회심리적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 사실 공동체의식과 사회책임의식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팬데믹 수준의 위기를 조건으로 다룬 경우가 없었다. 일본 아오모리 지역을 다룬 Takizawa 등(2006)의 연구 역시 지역내 자살률 증가를 지역 분위기 수준에서 스트레스 요인

으로 가정하였을 뿐이다. 지역 감염이나 전염병 상황을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반면,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간명했다. 표 5와 표 6의 결과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의 촉진적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는데, 즉, 사회적 책임의식이 클수록 제약/염려지각이 긍정적 심리반응을 유도하는 경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곧 코로나19의 제약/염려로 인해 위기감이 생겼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더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긍정적 심리반응’의 목록을 보면(‘방법’ 절참고), 대부분 개인적 행동양식, 가족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인지적 수준의 긍정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파구 모색이나 새로운 행동양식, 혹은 가치관 전환 등의 목록 내용을 고려할 때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촉진적 조절효과는 여성 표본에서만 나타났고 남성 표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곧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하여 더 큰 위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표 1)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하여 더 현실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경향이 여성에게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존과 안전에 대하여 여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대구경북과 기타지역의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타지역 표본에서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촉진적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설명량 7%), 코로나19의 위기를 강하게 경험한 대구경북 표본에서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단순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이는 아마도 대구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팬데믹의 공포를 이미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팬데믹의 위기감이 새로운 돌파구 모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그런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주의할 만한 다른 특징은 사회적 책임의식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확인된 반면, 공동체의식이나 자기오락화 역량은 어디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이 부정적 반응을 줄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긍정적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류승아, 2014; Roussi 등, 2006) 다른 결과인 셈이다.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의 개념과 측정이 공동체라는 자원을 활용한 욕구충족의 지각 수준에서 다루어졌고 본 연구 역시 이런 수준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이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하여 아무런 상호작용 효과나 주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주의하여 해석할 만하다. 아마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영향이나 효과를 다룬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위기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충족적 공동체의식이 심리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사하게도 자기오락화 역량의 3가지 차원이

긍정적 심리 반응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결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역량은 자유재량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게 하는 개인적 특질이지만, 팬데믹 위기상황에서 접하는 일상의 시간은 자유재량 시간이 아니라 인내와 극복이 요구되는 특별한 시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자기오락화 역량이 심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엄습한 후 우리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위기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심리적 특징을 탐구하는 초기 연구라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가 부정적 심리반응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 심리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코로나19의 종속적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균형적이고 양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공동체를 조건으로 하는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 모두 팬데믹 상황의 영향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결과로부터 향후 가능한 연구방향을 찾을 수 있다. 즉,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의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작동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연구가 가능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달리 사회적 책임의식은 긍정적 심리반응에 대하여 촉진적 조절효

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팬데믹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심리적 동력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사회는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어왔고, 또한 인류 사회는 이를 극복하고 발전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의 원인이 사회적 책임의식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추론은 향후 연구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무적으로도 사회적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행동을 설명하는 자기오락화 역량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오락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의미인 ‘무기력 요인’만이 부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촉진적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기오락화 역량 혹은 ‘오락화: 자기양식’ 요인이 단일차원이 아니라 결핍과 풍부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을 해석한 바 있다. 이는 곧 소비자행동 영역에서 ‘만족-불만족’의 (비)연속성 논쟁과 유사한 이슈가 될 수 있고, 향후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부정적 심리반응에 대하여 자기오락화 역량 중 무기력 요인의 촉진적 조절효과가 남성 표본이 아닌 여성 표본에서만 유의하게 나온 사실로부터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고려할 만하다. 즉, 여성들이 위기를 심각하게 지각하고, 그로부터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무기력하다고 지각할수록 그 경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은 향후 여가와 스트레스라는 연구 주제에서 성별이 중요한 조절변

인이 될 수 있고, 핵심적 요인으로서 오락화 무능력에 대한 지각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선결적 조치들이 결국은 사회적 수준에서 팬데믹 위기로부터 절망적 상황에 빠져들 위험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 보건이나 여가교육의 수준에서 개인 구성원의 오락화 역량을 일정 수준까지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자기오락화 역량이 자유재량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시기 일상적인 수준의 자유재량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뿐, 팬데믹과 같은 광범위한 위기 상황을 즐겁게 전환시키는 동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추론이 타당하다면, 자기오락화 역량 혹은 자기목적적 성향의 심리적 기능은 위기전환의 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채우는 수준의 심리적 기능에 국한된 구성개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 향후 연구 주제가 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표본으로 선정된 세 지역의 대학생 302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회구성원을 제대로 대표하는지가 문제이다. 표본의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둘째, 측정과 변인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공동체의식을 단축형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의 측정은 환경규범과 친환경 책임의식에 해당되는 문항을 사회적 규범과 보호의식에

맞게 번안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고민할 여지가 있다.

셋째, 코로나19의 여파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긍정적/부정적 심리 반응의 다양성이 곧 스트레스 강도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질적 수준만을 반영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가능성은 질적 반응의 다양성이 양적 반응의 강도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리적 반응의 다양성이 스트레스의 양적 수준과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정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의 양적 강도를 측정했지 않다면 스트레스의 질적 종류에 초점을 방식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긍정적/부정적 스트레스 측정방식을 개정한 후속의 추가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의 다른 한계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일정기간 진행된 후 종결된 과거형이 아니라 이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 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이 알려주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의 심리적 현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형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연구결과 해석의 한계도 있다. 본 연구의 횡단적 조사 방식의 결과는 언제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성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즉, ‘역인과성의 가능성’으로서³⁾, 스

3) ‘역인과성(逆因果性)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트레스 반응이나 심리적 경험이 먼저 생기고 그것의 원인을 탐색하는 귀인의 결과로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지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역인과성”의 가능성 추론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이미 팬데믹 수준의 지위로 얻고 있을 만큼 심각하게 지각되고 있는 사회적 현황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여러 이유로 후속의 종단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고동우, 김병국, 박정화 (2012). 여가정체성, 자기오락화 능력과 여가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학연구*, 36(6), 57-77.
-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승아 (2014).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43-60. <https://doi.org/10.21193/kjspp.2014.28.3.003>
- 박가나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종한 (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6(2), 76-93.
- 장수지, 김수영, Kobayasi, E. (2014). 연령집단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24. <https://doi.org/10.21193/kjspp.2014.28.2.001>
- 정진경 (1999).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2), 19-30.
- 최성범, 함경수 (2009). 대학생의 여가참여유형과 자기오락화 능력 및 대학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8(3), 417 - 429.
- Barnett, L. A., & Klitzing, S. W. (2006). Boredom in Free Time: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affect, and motivation for different gender, racial and ethnic student groups. *Leisure Sciences*, 28(3), 223-244. <https://doi.org/10.1080/01490400600598053>
- Barnett, L. A. (2006). Accounting for Leisure Preferences from Within: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gender, race or ethnicity, personality, affective style,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introduction and related literat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8(4), 445-475. [Google Scholar]
- Buckner, C. J. (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6), 771-791. <https://doi.org/10.1007/BF00930892>
- Chavis, D. M., Hogge, J. H., McMillan, D. W., & Wandersman, A. (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24-40. [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24::AID-JCOP2290140104>3.0.CO;2-P](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24::AID-JCOP2290140104>3.0.CO;2-P)
- Chipuer, H. M., & Pretty, G. M. H. (1999). A Review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Current uses,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further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43-658.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911\)27:6<643::AID-JCO](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911)27:6<643::AID-JCO)

- P2>3.0.CO;2-B
- Cicognani, E., Pietrantonio, L., Palestini, L., & Prati, G. (2009). Emergency Workers' Quality of Life: The protective role of sense of community, efficacy beliefs and coping strateg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4*(3), 449-463. <https://doi.org/10.1007/s11205-009-9441-x>
- Coble, T. G., Selin, S. W., & Erickson, B. B. (2003). Hiking Alone: Understanding fear, negotiation strategies and leisur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1), 1-22. <https://doi.org/10.18666/jlr-2003-v35-i1-608>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NY; Harper Perennial.
- Csikszentmihalyi, M., & LeFevre, J. (1988). Optimal Experience in Work and Lei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815-822.
- Davidson, W. B., & Cotter, P. R. (1986).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7), 608-619.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6.tb01162.x>
- Greenfield, E. A., & Marks, N. F. (2010). Sense of Community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Long-term Psychological Effects of Childhood Violence. *Social Service Review, 84*(1), 129-147. <https://doi.org/10.1086/652786>
- Hubbard, J., & Mannell, R. C. (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3), 145-163. [Google Scholar]
- Iso-Ahola, S. E., & Weissinger, E. (1987). Leisure and Boredo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5*(3), 356-364. <https://psycnet.apa.org/doi/10.1521/jscp.1987.5.3.356>
- Jackson, E. L. (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10*, 203-215.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 (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1), 1-11. <https://doi.org/10.1080/01490409309513182>
- Kleiber, D. A., Walker, G. J., & Mannell, R. C. (2011).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2nd Ed.).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Lounsbury, J. W., & DeNeui, D. (1996).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81-394.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81::AID-JCOP7>3.0.CO;2-X](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81::AID-JCOP7>3.0.CO;2-X)
- Mannell, R. C. (1984). Personality in Leisure Theory: The self-as-entertainment construct. *Loisir et Societe/Society and Leisure, 7*(1), 229-240. <https://doi.org/10.1080/07053436.1984.10715180>
- Martí-Vilar, M., Corell-García, L., & Merino-Soto, C. (2019). Systematic review of prosocial behavior measures. *Revista de Psicología, 37*(1), 349-377. <https://doi.org/10.18800/psico.201901.012>
- McMillan, D. W. (199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15-325.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15::AID-JCOP2>3.0.CO;2-T](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15::AID-JCOP2>3.0.CO;2-T)
- McMillan, D. W. (2011). Sense of community, a theory not a value: A response to Nowell

- and Boy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5), 507-519.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 Neulinger, J.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2n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Nowell, B. & Boyd, N. (2010). Viewing Community as Responsibility as Well as Resource: Deconstructing the theoretical root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 828-841. <https://doi.org/10.1002/jcop.20398>
- Onwezen, M. C., Antonides, G., & Bartels, J. (2013). The Norm Activation Model: An exploration of the functions of anticipated pride and guilt in pro-environmental behaviou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9, 141-153. <https://doi.org/10.1016/j.joep.2013.07.005>
- Perkins, D. D., Florin, P., Rich, R. C., Wandersman, A., & Chavis, D. M. (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Residential Blocks: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83-115. <https://doi.org/10.1007/BF00922690>
- Peterson, N. A., Speer, P. W., & McMillan, D. W. (2008).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 61-73. <https://doi.org/10.1002/jcop.20217>
- Pretty, G. M. H., Andrewes, L., & Collett, C. (1994). Exploring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4), 346-358. [https://doi.org/10.1002/1520-6629\(199410\)22:4<346::AID-JCOP2290220407>3.0.CO;2-J](https://doi.org/10.1002/1520-6629(199410)22:4<346::AID-JCOP2290220407>3.0.CO;2-J)
- Roussi, P., Rapti, F., & Kiosseoglou, G. (2006). Coping an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 exploratory study of urban and rural areas in Greece.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19(2), 161-173. <https://doi.org/10.1080/10615800600593304>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221-279.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358-5](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358-5)
- Scott, D. (1991). The Problematic Nature of Participation in Contract Bridge: A qualitative study of group-related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321-336. [Google Scholar]
- Son, J. S., Mowen, A. J., & Kerstetter, D. L. (2008). Testing Alternativ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Models: An extension of Hubbard and Mannell's Study. *Leisure Sciences*, 30(3), 198-216. <https://doi.org/10.1080/01490400802017308>
- Weissinger, E., & Bandalos, D. L. (199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to Measure Intrinsic Motivation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4), 379-400.
- White, D. D. (2008). A Structural Model of

고동우 / 코로나19의 제약을 견디는 사람들 :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오락화 역량을 중심으로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s*, 30(4), 342-359.

원 고 접 수 일 : 2020. 06.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8. 11.

게 재 결 정 일 : 2020. 08. 22.

What Makes People Overcome COVID-19 Pandemic?: Vulnerable or tolerable characteristics

Dong-Woo Ko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Daegu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coping capacity to the pandemic crisis of COVID-19 which had been spreaded in KOREA from Jan. 2020. It was anticipated that the frequencies of both negative and positive psychological responses induced from the pandemic crisis would be varied by three moderators;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beliefs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as-entertainment capacity[i.e., SAE]. The 302 undergraduates data were collected with Google web survey method.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into two points; first, the significant influential path of the pandemic crisis from COVID-19 on the negative psychological response has been more facilitated by the helplessness factor of SAE. The facilitating moderate effect was more in the female sample and the sample with higher crisis of COVID-19. Seco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pandemic crisis has been facilitated by beliefs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facilitating moderate effect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female sample. The results imply that the different people who are vulnerable or tolerable to the pandemic crisis may have differ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helplessness or social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it was discus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future study issues.

Key words : COVID-19, Leisure Constrain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ocial Responsibility, SAE (self-as-entertainment capacity), Positive/Negative Psychological Responses, etc.